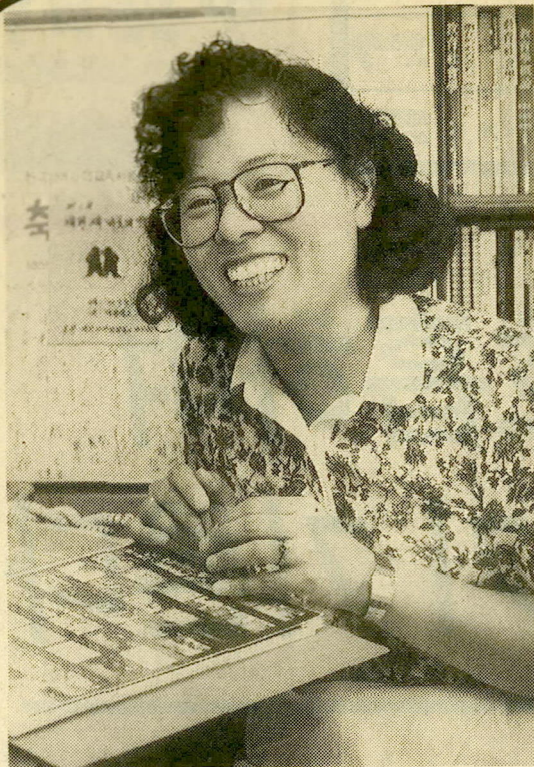


여성가정



「새이웃의 밤」 개최

지난 7일 열렸던 「새이웃의 밤」 사진을 들여다 보며 『예상으로 이웃 부부들의 호응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金禾卿씨. 그는 특히 「남자이웃들간의 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 <崔正東기자>

開院國교 학부모 金禾卿씨

학교를 중심으로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가슴속에 높게 드리워진 담장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성이 있다.

지난 7일 오후 8시 開院國교(서울開浦洞) 교정에서 「제 1회 개원 새이웃의 밤」을 개최, 1백쌍이 넘는 동네부부들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金



니 開院國校 劉小姐교장(64)께서 부부모임의 의미가 훨씬 크다며 격려해주는 바람에 감행하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달 26일 개원國교의 가정통신을 이용, 「자녀의 교정에서 이웃들과 정을 익히며 고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는 요지의 취지문과 함께 참가신청서를 보내 29~30일 접수 받은 결과 89쌍이 신청해왔다.

『18명 임원진들의 부부를 포함해 1백쌍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접수기간 이후에도 뒤늦게 신청해온 이들이 있어 행사날에는 순수참가자만 1백쌍이 된데다 행사도중 동네에서 음악소리를 듣고 달려온 부부도 6쌍이나 돼 그야말로 「성황」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들이 과연 엄마들과 함께 학교에 올랐던 것이 완전히 기우였다』며 웃는다.

『학교에 아버지들의 발을 한 번만 들여보내게 하자』는게 그의 숨겨진 의도. 평소 청소년범죄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부족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는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의 학교 생활등에 관심을 갖는것이 교육상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고있다.

「남자 이웃들간의 교류」는 그의 또다른 의도. 『주부들끼리는 그래도 교류가 활발한 편이지요. 반상회도 있고 아이들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익힐 기회도 많지요. 그런데 남자들은 직장 과 사업에 매달려 지내다보면 자기 아내와 얘기할 틈도 별로 없거든요.』

평소 소원한 남자이웃간의 사이를 「이웃사촌」으로 바꾸고 싶어 「가벼운 술상모임」을 여러번 꾀한바있는 그는 ▲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부부 모임으로 아빠들 만남의場 마련”

禾卿씨(37·주부·개원지역사회 학교 운영위원회장·개포주공 아파트83동101호)가 바로 그 주인공.

『이웃 부부끼리 서로 손을 잡고 목청껏 「사랑해」를 부르자, 순간 코끝이 찡해오더군요. 분위기 탓인지 초면인 이웃끼리도 금방 친해져 웃음을 주고 받는가하면, 같은 아파트단지안에 살면서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모임을 통해 학교 선후배가 만나기도 하는것을 보고 정말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金씨는 『예정시간안에 도저히

끝낼수 없어 프로그램을 예정보다 1시간이나 더 연장했는데도 헤어짐을 아쉬워한 사람들이 많아 오전 2~3시까지 함께 어울렸던 부부들까지 있었다』면서 흐뭇해했다.

그가 이 프로그램을 구상한것은 지난 3월. 개원지역사회 학교 임원들과 1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7월 첫째 토요일이 마침 음력보름날이라는 데 착안, 달밝은 여름밤에 부부한마당을 펼쳐보기로 했다.

『과연 부부모임이 잘 될수있을까 자신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교실」이라는 강좌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했다

점▲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이웃을 초대하기 힘든 점등이 있어 代案을 강구하게 됐다.

행사당일 아침 폭우가 쏟아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에게 모임연기를 통보했다가 시작 3시간전인 오후 5시까지 연락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굴렀던 일이며, 경비가 넉넉지 못해 음식이 빈약했던 송구스러움도 이젠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거리. 金씨는 『가능하면 이런 모임을 자주 가져 이웃의 정을 도담게 하고싶다』고 말했다. <洪垠姬기자>